

CONTENTS

한반도
동향

2020년 1월

I. 주요 정세

II. 주요국 연구동향

1. 한국 2. 미국 3. 중국 4. 일본 5. 러시아

III. 북한 관련 동향

1. 북한 주요 일지
2. 북한언론 주요 사실 및 논평

편집책임 이무철 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작성작 김혜민 기획조정실 연구원

서양아 기획조정실 연구원

김아영 기획조정실 연구원

용해민 평화연구실 연구원

김소연 기획조정실 연구원

권주현 북한연구실 연구원

윤혜령 통일정책연구실 연구원

탁민지 인도협력연구실 연구원

이 달의 주요 연구동향

※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본문으로 이동합니다.

한국

북핵위기의 데자뷰와 '북핵협상 악순환' 차단 전략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오늘날 북핵국면이 다시 악화되는 상황을 보며 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데자뷰를 경험하게 될 것...

미국

Would Trump Dare 'Soleimani' North Korea? [The National Interest](#)

이란 솔레이마니의 암살은 미국의 정책적 측면에서는 충격적인 발전일 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두 전임자인 조지 부시와 버락 오바마가 고려했으나...

중국

한반도 정세 변화와 중국의 새로운 동북아 전략 구상 [하얼빈공업대학 학보](#)

2018년 이후 한반도 정세 변화와 함께 동북아 지역 협력의 중요한 기회가 마련됨에 따라 중국의 동북아 전략 구상도 새로운 전기를...

일본

북한의 경제개혁 방향 변화의 조짐 - 제재 정면돌파를 내세우며 강해지는 통제 [일본경제연구센터](#)

북한이 2019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전원회의를 통해 핵실험 및 ICBM 발사의 재개와 경제개혁의 제도 변경을 시사...

러시아

김정은, 경제, 외교, 군사 전면에 대한 '정면돌파전' 지시 [러시아국제관계위원회](#)

2019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가 개최되었으며...

북한

당창건 75돐을 맞는 올해에 정면돌파전으로 혁명적대진군의 보폭을 크게 내짚자 [노동신문](#)

1월 3일자 노동신문은 현 정세에서 정면돌파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설을 게재함...

I

주요 정세

1.1.(수)

김정은 국무위원장,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할 새로운 전략무기 목격할 것”, “우리의 (핵)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 입장에 따라 상향 조정”(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 보고)

1.2.(목)

강경화 외교부 장관, “한국, 비핵화 대화 모멘텀에서 결정적 역할... 진정한 평화 위한 큰 걸음 내딛는 것이 올해 과제”(2020년 외교부 시무식 및 신년인사회)

김연철 통일부 장관, “과감하고 혁신적인 ‘새로운 사고’ 필요... 2018년 합의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올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2020년 통일부 시무식)

국방부,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한미연합훈련 조정 시행”(대변인 정례브리핑)

1.3.(금)

중국, “북미 양측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해 성과 내기를 희망”,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 발언에 대해) 현 한반도 정세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화에 도움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1.4.(토)

김건 외교부 차관보-데이비드 스탈웰 미국 국무부 차관보 회동(미국 워싱턴 D.C.)

한미관계와 동맹 현안, 양국 관련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 전반 논의

1.7.(화)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발표

“우리에게 한반도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반드시 가야 하는 길, 북미대화의 촉진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 “남과 북은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 8천만 겨레의 공동 안전을 위해 접경지역 협력 시작할 것 제안”,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 계속,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위한 여건이 갖춰지도록 남북 함께 노력하길”

1.8.(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한미 북핵수석대표 회동 (미국 워싱턴 D.C.)

한미 간 긴밀한 조율 재확인

1.9.(목)

진정현 러시아 주재 북한 임시 대리대사-게오르기 지노비예프 러시아 외교부 아주1국 국장 회동(러시아)

지노비예프 국장, “정세 변화와 관계없이 전통적인 러조관계가 계속 발전돼야 한다”

1.10.(금)

청와대,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생일 축하 메시지 전달’ 밝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트럼프 대통령 면담 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메시지 전달 받아

1.12.(일)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우리는 협상 재개를 원한다는 의사를 북한에 전달했다. 여러 채널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 약속 이행을 원한다는 뜻도 전달” (인터넷매체 악시오스 인터뷰)

1.13.(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북한이 세계 뿐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도 올바른 결정 내릴 것 기대”, “미국은 북한에 안보 위협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더 밝은 미래 원해”

1.14.(화)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참석

“남북협력 과정에서 제재 예외적 승인 필요하다면 노력”,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 협력을 증진하면서 북미대화를 촉진시킬 필요”, “북핵 해결 위해 중국 역할 중요, 2022년 한중수교 30주년 앞두고 문화·인적교류 활발히 하며 협력할 것”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 개최(미국 팰로앨토)

강경화 외교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참석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한미일이 계속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간다는 것 확인”

한미 외교장관 회담 개최(미국 팰로앨토)

“북한에 대한 한미의 긴밀한 조율 계속”, “양 장관은 한미동맹의 지속되는 힘을 높이 평가 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한국의 신남방정책 협력에 대한 약속 재확인”,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 논의 및 지역적·국제적 사안에서의 협력 계속 약속”(미국 국무부 보도자료)

1.14.(화)

미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미국 워싱턴 D.C.)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북한 비핵화는 미국의 우선순위 중 하나, 한미일 관계는 이 도전에 대처하는 데 필수”, “최선의 나아갈 길은 북한의 비핵화로 귀결되는 외교적 해법”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북한에 대한 미국의 최 대압박 지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북미관계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계획”(대북 종교·시민단체 대표와의 오찬 간담회)

한미,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6차 회의 개최(미국 워싱턴 D.C.)

1.15.(수)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미국 워싱턴 D.C.)

트럼프 대통령, “결코 중국과 함께 한 적이 없는 중대한 발걸음을 내딛어”, “우리는 북한 관련하여 매우 긴밀히 협력할 것, 중국은 북한 문제에 도움이 되어왔다”,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매우 존경”

통일부, “개별관광은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 “남북협력사업에는 한미 간 협의사항이 있고, 남북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대변인 정례브리핑)

1.16.(목)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금강산관광이나 대북 개별방문은 대북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 언제든 이행할 수 있고, 이 부분을 검토 중”(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개별관광 등 한국정부의 독자적 남북협력 추진 구상 관련)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다루는 게 낫다”(외신기자 간담회)

미국 국방부, “중동이든 유럽이든 아시아든 우리 동맹이 분담금을 약간 더 올리길 기대... 한국의 경우, 분담금의 일부인 많은 돈이 다시 한국경제로 직접 되돌아간다”(대변인 브리핑)

1.17.(금)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한미 북핵수석대표 회동(미국 워싱턴 D.C.)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에 관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합의”, “남북관계 개선 자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 재확인”

1.20.(월)

통일부, “北 개별관광은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대상 아니다”
(‘개별관광 참고자료’)

아베 신조 총리, 정기국회 시정연설

“한국은 기본적 가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 “한국이 국가와 국가 간 약속을 지켜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를 구축하길 기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정기국회 외교연설

“일한 간 최대 과제인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를 한국 측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 하도록 지속 요청, 당국 간 협의 계속”, “다케시마는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할 것”

일본 정부, ‘독도는 일본 땅’ 선전을 위한 ‘영토·주권 전시관’ 확장·이전, 개관식 개최

외교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 및 일본의 독도 도발 관련 항의

“2018년 ‘영토·주권 전시관’ 개관 이래 우리 정부가 즉각적 폐쇄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확장·개관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 “(모테기 외무상의 외교연설 관련)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할 것을 촉구”

1.21.(화)

국방부, 청해부대 호르무즈 해협 ‘독자적 작전’ 형식 파견 발표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

정부, ‘2032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 및 개최 추진 계획’ 국무회의 의결

주용철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관, “미국은 북한의 발전과 정치적 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야욕을 지녔다. 이러한 태도가 계속된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유엔 군축회의)

북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 유입 차단을 위해 중국 관광객 입국 금지

1.22.(수)

EU, 북한에 비핵화 협상 복귀 촉구(대표부 성명)

“북한의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한반도 평화 노력을 훼손”

1.2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설 명절 기념 공연 관람

김경희 노동당 전 비서 참석, 장성택 처형 이후 6년 만에 공개활동

1.28.(화)

강경화 외교부 장관-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통화

강경화 장관, 우한지역 체류 한국인 귀국 지원 등 안전 확보에 중국 측 협력 당부, “이번 사태가 조속하고 원만하게 수습되길 기대, 한국 정부도 필요한 물자 지원 등 협력 적극 제공”

1.28.(화)

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차관, “북한이 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의미있는 선의의 협상에 관여하는 것”

“(대북제재에 대해) 불법적 무기 개발과 경제성장의 동시 달성 목표가 병존할 수 없음을 북한이 확실히 인식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 대북압박이 없다면 실현가능한 결과가 있을 것 같지 않다”

1.29.(수)

정경두 국방부 장관, 라이언 매카시 미국 육군성 장관·폴 라카메라 미국 태평양육군사령관 접견(서울)

한반도 안보 상황 평가 및 한미 육군 간 협력 증진 방안 논의

주한미군사령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4월 1일자로 무급휴직 사전통보

주한미군, “대한민국 국방부와 협의를 지속,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인건비의 부족을 완화하고자 노력했으나 불가피한 결정”

1.30.(목)

남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해소 때까지 개성연락사무소 운영 잠정중단

외교부, 우한 교민 수송을 위해 전세기 동원

교민 367명 탑승

1.31.(금)

북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집중을 위해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 연기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북한, 서울-평양 간 직통전화로 연결된 팩스를 통해 ‘금강산 국제관광국’ 명의로 통보”(정례브리핑)

II

주요국 연구동향

1. 한국

■ 중국이 보는 2020년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길’

(이성현, 『세종논평』, No. 2020-02, 세종연구소, 2020.1.6.)

- 중국은 연말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킨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 언급을 한국과 미국이 ‘과대평가’한 것으로 평가함.
 - 이는 이태성 외무성 부상의 발언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시한과 다름.
 -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보고 중 김정은 위원장 발언 중 ‘충격적 실제 행동’에 대해서도 ‘관념’적으로 이해하여,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략 무기 개발을 비롯한 국방능력 향상에 있어서 실제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이를 성과로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사용한 것이라 해석함.
-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낮고, 북미회담은 종료되지 않았으며, 북한의 ICBM 실험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임.
 -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한반도 3대 정책의 한 기둥인 ‘비핵화’를 북한이 쉽게 위배하지 않을 것임.
 - 미국이 북한과 이란을 대하는 방법이 다르고,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 발언 후에도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호의적인 표현을 쓰고 있으므로 트럼프가 ‘툭다운’ 방식으로 김정은에게 대화를 제의한다면 재개 가능성은 있음.
 - ICBM은 북미관계 악화 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며, 그럴 경우에는 북한이 중국에 사전통보할 것임.
- 중국은 이번 메시지를 ‘주체사상’ 맥락으로 접근하여, 국가의 운명을 ‘강대국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이 핵심메시지라고 보고 있음.
 -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외교를 강대국에 의존하지 말고, 자력갱생과 사회주의건설 정신으로 국방, 경제를 주체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임.
 - 또한, 북한이 남북관계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남한에 대한 경고라고 해석함.

※ 원문 <http://www.sejong.org/board/1/egoread.php?bd=1&itm=&txt=&pg=1&seq=5207>

■ 북핵위기의 데자뷰와 ‘북핵협상 악순환’ 차단 전략

(전봉근, 『주요국제문제분석』, 2020-01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0.1.9.)

- 오늘날 북핵국면이 다시 악화되는 상황을 보며 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데자뷰를 경험하게 될 것임.
 - 전쟁·북핵위기 발생→남북협상/합의문 채택→일상 복귀→북미갈등→북미협상 재개/임시 봉합적 핵합의 채택
- 지난 30년간 북핵협상 과정은 북한의 도발, 북핵위기·전쟁위기 발생, 북미협상과 핵합의, 핵합의 불이행과 붕괴 등 4단계의 정형화된 ‘북핵협상 악순환’ 패턴을 보였음.
 - ① 북미 간 상호 적대관계로 인한 극단적인 불신, 근본적 이해관계의 충돌 등이 북핵협상 악순환의 근본적인 원인임.
 - ② 미국의 비핵화 외교는 전략과 로드맵을 갖고 체계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뒤늦게 위기해소를 위한 반응(reaction)으로 실현된 것임.
 - ③ 북한체제의 내구성, 그리고 핵개발 의지와 역량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때 유인책 제공보다는 제재압박이 보다 효과적이고 빠른 성과를 거두는 옵션으로 선택됨. 그런데 북한이 항상 평가보다 높은 핵역량과 저항성을 보였기 때문에 제재압박정책은 실패함.
 - ④ 정부교체에 따라 대북정책이 달라져 일관성과 지속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과 북핵 해법이 부재한 것도 북핵 합의 붕괴의 원인임.
-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①북미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평화체제 구축, 중국의 대북 안전 보장 등을 통한 안보환경의 개선 등이 필요하며, ②김정은의 비핵화 결정 및 실행에 옮기는 결단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와 북미 및 남북 관계개선을 교환하는 대원칙의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정치적 실행의지와 국내합의를 유지해야 함.
 - 효과적이고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비핵화 목표는 단계적이며 제한적인 목표로 수정되어야 할 것임.
 - 한반도 환경에 부합하는 별도의 ‘북한형’ 또는 ‘한반도형’ 비핵화 모델을 개발할 것을 제안함.

※ 원문 <http://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pbcltDtaSn=13505&clCode=P01&menuCl=P01>

■ 김경희 재등장의 의미와 파급영향

(김일기·김인태, 『이슈브리프』, 통권 167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0.1.31.)

- 노동신문 1월 26일자 1면에 게재된 김정은 설명절 기념공연 관람사진에서 백두혈통의 최연장자인 김경희가 관측됨.
- 북한에서 김경희는 ‘반역자 장성택의 부인’보다는 ‘김일성 주석의 딸’로 기억되고 있어 백두혈통의 정통성을 드러내는 데 효과적임.
 - 지난 공연 관람 시 김경희에게 ‘동지’라는 호칭만 붙인 것으로 보아 김경희는 현재 공식적 직책이 없음.
 - 주요 국가회의가 아닌 기념일과 국가행사에 김경희를 참석시킴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의 정통성과 김일성 일가의 단합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상징정치’의 일환임.
- 김여정이 김경희의 등장으로 후광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적지 않음.
 - 김경희는 김정일의 여동생으로서 노동당 경공업 부장과 정치국원을 역임하였으며 대장 계급장까지 부여받은 바 있음.
 - 김경희의 재등장은 김여정의 정치적 위상 증대와 역할 확대에 명분을 제공할 수 있고, 북한의 간부와 주민들이 김여정의 높은 위상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원문 http://www.inss.re.kr/contents/publications_ib.htm

■ 더 알아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1.2.	2019년 아세안 정세 평가와 2020년 전망	최윤정	세종연구소	http://www.sejong.org/board/1/egoread.php?bd=2&itm=&txt=&pg=1&seq=5205
1.2.	당중앙위 전원회의 경제분야 평가: ‘자력갱생’ 기조 하 국가 경제운영의 새로운 판짜기 착수	양문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http://ifes.kyungnam.ac.kr/kor/PUB/PUB_0501V.aspx?code=FRM200102_0001
1.2.	북·미 관계 거친 파도 앞에 놓인 한반도 안보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http://www.asaninst.org/contents/%eb%b6%81%c2%b7%eb%af%b8-%ea%b4%80%ea%b3%84-%ea%b1%b0%ec%b9%9c-%ed%8c%8c%eb%8f%84-%ec%95%9e%ec%97%90-%eb%86%93%ec%9d%b8-%ed%95%9c%eb%b0%98%eb%8f%84-%ec%95%88%eb%b3%b4/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1.2.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분석	최강·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http://www.asaninst.org/contents/%eb%b6%81%ed%95%9c-%eb%85%b8%eb%8f%99%eb%8b%b9-%ec%a4%91%ec%95%99%ec%9c%84%ec%9b%90%ed%9a%8c-%ec%a0%84%ec%9b%90%ed%9a%8c%ec%9d%98-%ea%b2%b0%ea%b3%bc-%eb%b6%84%ec%84%9d/
1.2.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평가와 한반도 정세 전망	정성장	세종연구소	http://www.sejong.org/board/1/egoread.php?bd=1&itm=&txt=&pg=1&seq=5204
1.2.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과를 통해 본 2020년 북핵 문제 전망	전봉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http://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pblctDtaSn=13501&clCode=P07&menuCl=P07
1.3.	한반도 '3월 위기' 닥치고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http://www.asaninst.org/contents/%ed%95%9c%eb%b0%98%eb%8f%84-3%ec%9b%94-%ec%9c%84%ea%b8%b0-%eb%8b%a5%ec%b9%98%ea%b3%a0-%ec%9e%88%eb%8b%a4/
1.6.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7기 5차 전원회의 분석	김영희	KDB미래전략 연구소	https://rd.kdb.co.kr/index.jsp
1.8.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의 신안보적 함의와 전망	김호홍	국가안보전략 연구원	http://www.inss.re.kr/contents/publications_ib.htm
1.8.	북한 노동당 7기 제5차 전원 회의의 함의와 2020년 북한 정세 전망	김진아	국방연구원	http://www.kida.re.kr/frt/board/frtPcrnBoard.do?sidx=1182&depth=4
1.9.	미중 경쟁 시대 한국의 '중간국' 외교전략 모색	전봉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http://www.ifans.go.kr/knda/ifans/kor/act/ActivityList.do?ctgrySe=06
1.10.	한반도리포트 2019-2020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http://ifes.kyungnam.ac.kr/kor/PUB/PUB_0206V.aspx?code=PRI200115_0001
1.17.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의 신뢰구축 현황과 제언	김진원·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	http://www.kida.re.kr/frt/board/frtNormalBoardDetail.do?sidx=2184&idx=686&depth=2&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eIndex=1
1.22.	2020 북한의 안보정세 전망	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	http://www.kida.re.kr/frt/board/frtNormalBoardDetail.do?sidx=2184&idx=687&depth=2
1.23.	트럼프 재선 가능성과 한미 동맹	J. James Kim	아산정책연구원	http://www.asaninst.org/contents/%ed%8a%b8%eb%9f%bc%ed%94%84-%ec%9e%ac%ec%84%a0-%ea%b0%80%eb%8a%a5%ec%84%b1%ea%b3%bc-%ed%95%9c%eb%af%b8%eb%8f%99%eb%a7%b9/

2. 미국

■ Why America Should Strike an Interim Deal with North Korea (Michael E. O'Hanlon, Brookings Institute(*The Hill*), 2020.01.02.)

-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전반적인 외교를 큰 성공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포함하여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주장을 지속하기는 힘들.
 - 트럼프 행정부는 어떻게 나아갈지 확신이 서지 않은 것 같으며, 존 볼턴 국가 안보보좌관 퇴임 후에도 강경파들은 완전하게 돌이킬 수 없는 검증 가능한 빠른 핵 군축(complete, irreversible, verifiable, and fast nuclear disarmament)을 고집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핵탄두와 관련 시설을 폐쇄해야만 제재를 해제 한다는 의미임.
 - 트럼프 행정부의 다른 파벌들은 협상을 어떻게 구상할 지에 대해 좀 더 실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의 난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하는 것도 어렵게 만들.
 -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 함께 북한의 무역을 심각하게 압박하는 대부분의 유엔 제재를 중단하고, 해제하는 데 동의해야 함.
 - 이러한 제재들은 다른 어떤 조치보다도 실질적인 피해를 입힘.
 - 대북 제재 해제는 북한이 공식적인 미국의 추정치를 확인하기 위한 해당 시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후, 핵 생산 시설 전체를 검증할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함.
- 미국은 베트남전과 마찬가지로 임시 협상(interim agreement)을 제안함으로써 전쟁과 핵위협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낮춰야 함.
 - 이러한 협상은 북한의 핵무기를 현재의 규모로 영구적으로 제한할 것임.
 - 또한 협정은 시험 유예를 공식적이고 영구적으로 만들어야 함.
 - 이러한 조치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의 품질과 정교함을 제한할 것임.
 - 북한은 당분간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으며, 미래의 협상을 위한 지렛대를 가진 미국은 제재를 유지하게 될 것

※ 원문 <https://www.brookings.edu/blog/order-from-chaos/2020/01/02/why-america-should-strike-an-interim-deal-with-north-korea/>

■ Would Trump Dare 'Soleimani' North Korea?

(Daniel R. DePetrìs, *The National Interest*, 2020.01.16.)

- 이란 솔레이마니의 암살은 미국의 정책적 측면에서는 충격적인 발전일 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두 전임자인 조지 부시와 버락 오바마가 고려했으나 결국 너무 위험하다고 일축하고 선택하지 않은 결정임.
 - 전 주미 프랑스 대사인 제라드 아워드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이제 완전히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프레데리카 모게리니 전 유럽연합 외교정책실장의 선임고문인 나탈리 토치는 17년 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당시보다 더 무모한 결정이었다고 평가
 - 만약 북미 간 긴장이 표면화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정치·군사 지도부를 제거하는 옵션을 고려할 것인지, 그 표적이 김정은 위원장일 것인지에 대한 가설이 가능
- 미국 정부는 법과 정책에 따라,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정치 지도부를 비공식적으로 암살하지 않음.
 - 미국은 1970년대 상원위원회(The Church Committee, 상원 정보위원회 전신)가 국가정보기관 내 일련의 권력 남용, 불법 행위 및 정책 계획 실패 등을 밝혀냈고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행정 명령을 통해 전술 금지령을 내림.
- 법을 떠나서, 핵 무장 세력의 지도자들을 목표로 암살하는 것은 미친 짓
 - 미국 역사상 그런 선택이 좋은 생각이라고 믿는 대통령은 없었으며, 그 결과는 극단적인 핵 보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
 - 북한은 구소련만큼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그래도 핵무기는 핵임.
- 오늘날 세계에서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의 심장부에 있는 인구밀집 지역인 한반도의 핵 교환처럼 위험한 것은 없음.
 - 대통령은 핵무기보유국의 최고 장성을 죽이는 것은 충분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함.

※ 원문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would-trump-dare-soleimani-north-korea-114281>

■ For Korean Americans, Divided-Family Reunification Act Is a Ray of Hope

(Yujin Kim and Olivia Enos, *Daily Signal*, 2020.01.15.)

- 2000년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20여 회 이상 열린 것에 비해 미주 한인과 북한 이산가족 간 공식적인 상봉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음.

- 2000년에 10만 명 이상의 이산가족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이제 몇 천 명만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
-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10월 30일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이산가족 통일 법안(The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passed the 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H.R. 1771))을 통과시켰고 본 회의 심의(투표)를 기다리고 있음.
- 미북 이산가족 문제는 역사적으로 미국과 북한 행정부 차원에서 정치적 의지가 부족해 진전을 이루지 못했으며, 최근 싱가포르나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정상 회담에서도 이산가족 상봉이 제기되지 않음.
 -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간 합의를 이끌어본 적은 없으며, 협상과정에서 북한이 상봉의 대가로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나 시도는 해봐야 함.
 - 한인 이산가족 상봉 사안은 특히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반드시 우선 사안으로 다뤄야 함.
- 북미 회담이 지연되고 있으나 만약 재개된다면 이산가족 상봉은 북미가 진전을 이루고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는 작은 사안이 될 것
 - 또한 이산가족 상봉은 한국과 미국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이산가족 상봉을 주최한 경험이 있으며, 이산가족 상봉을 시작하기 위한 절차를 고려할 때 미국을 지원할 수 있을지도 모름.

※원문 <https://www.dailysignal.com/2020/01/14/for-korean-americans-divided-family-reunification-act-is-a-ray-of-hope/>

■ Trump Should Offer Diplomatic Ties to North Korea—But Insist on Talking about Human Rights

(Doug Bandow, *The National Interest*, 2020.01.20.)

- 김정은 위원장은 안보와 인도주의적 우려를 뒤섞어 미국의 정책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
 - 안보와 인도주의적 문제를 함께 다루는 것은 한정된 북미관계에 과부하를 초래할 위험이 존재
 -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이미 해결이 나지 않고 있는 북핵 관련 회담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믿는 듯 하며, 한국 정부도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주저해 왔음.

- 일부 전문가들은 인권 문제가 오늘날의 핵 교착 상태를 해결할 수단이라고 분석
 - 로버트 맥코이 전 공군 특사는 북한이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처럼 사실상 핵군축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인권에 대한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국이 손해 볼 것이 없다고 주장
- 분명히 북미가 인권 문제에 관해 논의할 사항은 다양하며, 북한 정부의 관행이 조금만 개선되더라도 북한 주민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
 -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의 강한 비난과 불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변화를 강제할 지렛대는 없는데, 이미 북핵 압박 제재에 총력을 기울인 미국 정부에게 인권 및 다른 문제들에 대한 선택지가 거의 없기 때문
 - 북한 정권의 핵 보유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무기통제체제를 제한하는 것을 차선책으로 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인데, 김-트럼프의 브로맨스가 끝나더라도 인권이 여전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부차적인 문제로 남아있어야 할 이유가 있음.
- 미국 정부가 받을 비난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작은 거래부터 성사시켜야 하는데, 예를 들어 미사일과 핵실험을 중단하기로 한 북한의 합의와 군사훈련을 중단하기로 한 한미 간 합의를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며, 이어 평화 선언이 뒤따라야 함.
 - 이어 미국 정부는 무기 통제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을 개발하여 북한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북한 비핵화의 길로 나아가게 할 것
 - 미래의 협력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미국의 전쟁 복구와 인도적 지원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포함될 것
 - 안보 관련 논의가 진전되었다고 가정하고 제재가 해제됨에 따라 북한과 한미 간 경제협력의 기회도 마련될 것
- 마지막으로 인권은 관계 정립에서 비롯되는 대화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함.
 - 김정은 위원장은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보다 경제 성장의 가속화에 훨씬 더 관심이 많고, 지금까지 능숙하게 대처해 온 국제 외교 게임을 즐기는 듯 보임.
 - 이는 김정은 정권이 지대하게 투자한 핵무기 보유를 결심했다고 할지라도 전임자들보다 더 많은 양보를 국제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반증
 - 한국은 북한의 완전하고 완벽한 비핵화를 위해 조급함을 내려놓아야 하며, 인권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북핵 문제의 해결에 대한 가장 최선의 희망을 제공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함.
 - 미국은 외교 관계를 개방함으로써 북한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으나, 북한이 인권 등 미국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대화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에만 가능

※ 원문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trump-should-offer-diplomatic-ties-north-korea%E2%80%94insist-talking-about-human-rights?page=0%2C1>

■ 더 알아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1.01.	Trump Bet He Could Isolate Iran and Charm North Korea. It's Not That Easy	David E. Sanger	<i>NY Times</i>	https://www.nytimes.com/2020/01/01/us/politics/trump-iran-north-korea.html
01.02.	U.S. Withdrawal from the INF Treaty: What's Next?	CRS	CRS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IF/IF11051
01.02.	38 North Press Call Transcript: Kim Jong Un's 2020 New Year's Address: No, Kim Jong Un Is Not Taking a Wait and See Approach	Robert Carlin and Joel Wit	<i>38 North</i>	https://www.38north.org/reports/2020/01/pressbriefing010220/
01.02.	CSIS-DAPA Conference 2019: A New Generation of Partnership in the U.S.-ROK Alliance Conference	CSIS	CSIS	https://www.csis.org/analysis/csis-dapa-conference-2019-new-generation-partnership-us-rok-alliance-conference
01.02.	South Korea's Evolving Role in sub-Saharan Africa	Emilia Columbo	CSIS	https://www.csis.org/analysis/south-koreas-evolving-role-sub-saharan-africa
01.02.	North Korea Starts the New Year With a Threatened Bang	Bruce Klingner	<i>The National Interest</i>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north-korea-starts-new-year-threatened-bang-110256
01.02.	Yes, Peace with North Korea Is Still Possible.	Devin Stewart	<i>The National Interest</i>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yes-peace-north-korea-still-possible-110686
01.02.	It's Time to Face the Truth on North Korea	Daniel L. Davis	<i>The National Interest</i>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its-time-face-truth-north-korea-110691
01.03.	East Asia's Alliances Are Falling Apart	Elliot Silverberg and Andrew Injoo Park	<i>Foreign Policy</i>	https://foreignpolicy.com/2020/01/03/china-japan-korea-trump-comfort-women-east-asia-alliances-falling-apart/
01.03.	Yes, A Deal Between North Korea and America Is Still Possible	Doug Bandow	<i>The National Interest</i>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yes-deal-between-north-korea-and-america-still-possible-110711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1.03.	Has North Korea Given Up on a Deal with Donald Trump?	Ramon Pacheco Pardo	<i>The National Interest</i>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has-north-korea-given-deal-donald-trump-110911
01.03.	Is Kim Jong-un Feeling Insecure?	Bruce W. Bennett	<i>The National Interest</i>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kim-jong-un-feeling-insecure-110896
01.04.	Kim Jong-un's Big Speech Is Missing Something: South Korea	Eric Gomez	<i>The National Interest</i>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kim-jong-uns-big-speech-missing-something-south-korea-111206
01.05.	How Donald Trump and North Korea Can Strike a Nuclear Deal	Michael O'Hanlon	<i>The National Interest</i>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how-donald-trump-and-north-korea-can-strike-nuclear-deal-111216
01.05.	What Will North Korea Do in 2020?	Robert Farley	<i>The National Interest</i>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what-will-north-korea-do-2020-111221
01.05.	Time For President Trump to Truly Apply Maximum Pressure on North Korea	Olivia Enos	<i>The National Interest</i>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time-president-trump-truly-apply-maximum-pressure-north-korea-111226
01.06.	Could Donald Trump Use the State of the Union Speech To Change Course on North Korea?	Jessica Lee	<i>The National Interest</i>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could-donald-trump-use-state-union-speech-change-course-north-korea-111231
01.06.	Kim Jong-un's Resolute New Year's Declaration	Sung-Yoon Lee	<i>The National Interest</i>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kim-jong-un%E2%80%99s-resolute-new-year%E2%80%99s-declaration-111346
01.06.	Flexibility on Denuclearization Necessary for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Jongsoo Lee	CFR	https://www.cfr.org/blog/flexibility-denuclearization-necessary-north-koreas-economic-development
01.06.	Why No North Korean ICBM Test for Christmas?	Adam Mount	<i>The National Interest</i>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why-no-north-korean-icbm-test-christmas-111351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1.07.	Moon Jae-in Wants Peace with North Korea. There's Just One Problem.	Daniel R. DePetrus	<i>The National Interest</i>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moon-jae-wants-peace-north-korea-theres-just-one-problem-111656
01.08.	Can Science and Technology Be a Silver Bullet for the North Korean Economy?	Martyn Williams	<i>38 North</i>	https://www.38north.org/2020/01/mwilliams200108/
01.09.	Premature Epitaphs for Nuclear Diplomacy with North Korea	Leon V. Sigal	<i>38 North</i>	https://www.38north.org/2020/01/lsigal200109/
01.14.	Unique Facility in the Sanum-dong-Namgung-ni Area	Joseph Bermudez and Victor Cha	CSIS Beyond Parallel	https://beyondparallel.csis.org/unique-facility-in-the-sanum-dong-namgung-ni-area/
01.15.	Top Conflicts to Watch in 2020: A Severe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Joeeun Kim	CFR	https://www.cfr.org/blog/top-conflicts-watch-2020-severe-crisis-korean-peninsula
01.16.	The North Korean Economy in 2019: Treading but Not Underwater in the New Year	Benjamin Katzeff Silberstein	<i>38 North</i>	https://www.38north.org/2020/01/bkatzeffsilberstein011620/
01.16.	There is No 'Suleimani Doctrine' on North Korea (That Won't Start a War)	Robert E. Kelly	<i>The National Interest</i>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there-no-suleimani-doctrine-north-korea-wont-start-war-114451
01.17.	Why Did the Trump Administration Scold South Korea in the Wall Street Journal?	Daniel R. DePetrus	<i>The National Interest</i>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why-did-trump-administration-scold-south-korea-wall-street-journal-115176
01.19.	Why the U.S.-China Cold War Will Be Different	Robert D. Kaplan	<i>The National Interest</i>	https://nationalinterest.org/blog/buzz/why-us-china-cold-war-will-be-different-114986
01.19.	Trump's Strong-Arm Foreign Policy Tactics Create Tensions with U.S. Friends and Foes	Anne Gearan and John Hudson	<i>Washington Post</i>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trumps-strong-arm-foreign-policy-tactics-create-tensions-with-both-us-friends-and-foes/2020/01/18/ddb76364-3991-11ea-bb7b-265f4554af6d_story.html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1.22.	Diplomacy with North Korea: A Status Report	CRS	CRS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IF/IF11415
01.22.	Impact Player: Ri Son-gwon	Victor Cha and Dana Kim	CSIS	https://www.csis.org/analysis/impact-player-ri-son-gwon
01.23.	Don't Let The Smile Fool You. Kim And Too Many Others Are Not Champions Of Democracy	Markos Kounalakis via and Miami Herald	<i>Miami Herald</i>	https://www.miamiherald.com/opinion/op-ed/article239563398.html
01.28.	Kim Jong Un Rides to His Family's Battles	Katie Stallard-Blanchette	<i>Foreign Policy</i>	https://foreignpolicy.com/2020/01/28/kim-jong-un-north-korea-propaganda-national-myth/

3. 중국

■ 한반도 정세 변화와 중국의 새로운 동북아 전략 구상

(리청르 외, 하얼빈공업대학 학보, Vol.22 No.1)

(李成日, 朝鮮半島局勢轉變與中國東北亞戰略新構想, 哈爾濱工業大學學報, 2020年 第1期)

- 2018년 이후 한반도 정세 변화와 함께 동북아 지역 협력의 중요한 기회가 마련됨에 따라 중국의 동북아 전략 구상도 새로운 전기를 맞음.
 - 전통적으로 중국의 동북아 전략은 중국-러시아-몽골을 중심으로 하는 육상 협력과 한국-중국-일본을 주축으로 하는 해양협력으로 구분하여 전개
 - 중국의 새로운 동북아 전략구상은 '일대일로'에서 얻은 성과를 기초로 육상 협력과 해상협력을 융합하고 중국의 동북진흥 전략과도 연계하는 것이 핵심
- 2018년 3월 김정은 위원장의 첫 방중 이후 중국은 한반도 정세의 변화를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북중 우호관계 공고화에 적극적으로 나섬.
 -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협조와 북한 경제건설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강조
 - 북한 또한 최근 중국 '일대일로'의 진척 상황과 북중 경제협력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자국에 적합한 경제발전 모델을 탐색
 - 북한은 역내 및 전 세계에서 개발이 가장 더딘 국가 중 하나로 대북 경제협력은 동북아 지역 협력의 선결 과제일 뿐만 아니라, 중국 동북진흥 전략과 새로운 동북아 전략 추진에 유리한 기반이 될 것
-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은 동북아 협력의 발전 모델 촉진
 - 중·러 양국은 동북아 지역 내에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 협력은 선도적인 것으로 평가
 - 또한 중·러 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한반도 정세 진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 한·중·일 3국은 주권, 역사, 영토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으나,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협력의 기초를 마련해야 할 것
 - 2019년 말 베이징에서 열린 제8차 한중일 회의를 통해 '한중일+X' 협력에 대한 기대감 고조
 - 중국 '일대일로' 건설과 '한중일+X' 협력, 동북아 지역협력이 연계된다면, 동북아 운명공동체 구축이 가능할 것

※ 원문 http://pol.cssn.cn/zzx/gjzzx_zzx/202001/t20200116_5077794.shtml?COLLCC=3259561843&COLLCC=2305062844

■ 계속되는 게임, 남아있는 변수-2019년 한반도 정세 평가·분석

(텡왕천, 군사다이제스트, 2020. No.1.)

(滕王君, 博弈继续, 变数犹存—2019半岛局势评析, 军事文摘, 2020年 第1期)

-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국가 간 갈등과 지정학적 역량의 교차, 도전요인의 다원화 속에서 한반도 정세의 예측 불가능성 확대
-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압박 속에서도 자립경제 발전에 주력
 - 북미 양국이 비핵화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고, 북핵 상황의 본질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제재는 북한의 경제발전에 큰 타격을 주고 있음.
 - 장기화되는 제재와 봉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력갱생과 자립경제 발전을 강조
- 북한은 외교와 협상을 통해 위기를 완화하고 핵 포기 의지를 드러냈으나 미국의 일방적이고 비우호적인 태도로 비핵화 진전 실패
 -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과정을 통해 핵 관련 정보를 외부에 노출하였고, 북미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등의 외교활동과 협상을 통해 핵문제 해결 의지 표현과 정상국가로의 이미지 변신 시도
 - 핵문제를 둘러싸고 반세기 가까이 대치해 온 북미 양국이 한두 차례의 만남을 통해 합의를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향후 북한의 의지 표현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중요
- 게임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 지속
 -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평화는 동맹을 형성하고 있는 한국,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여타 동북아 국가에게도 근본적 이익이므로 한·미·일 동맹체제 강화는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더욱 의존하도록 만들 것
 - 미중 갈등 상황에서 북중관계는 미중관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며, 미국의 제재와 압박이 심화될수록 북한은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 등의 다른 저개발국가와의 관계 발전을 통해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만들고자 할 것
- 북한의 군사-경제 병진 노선 유지에 따른 불확실성 상존
 - 북한은 국내외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내부 권력을 공고히 하고, 미국의 냉담한 태도에 대한 대응으로 핵 개발을 지속해왔음.
 - 북한은 국제사회의 압박과 미국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도 동요하지 않고 자국이 정한 노선에 따라 경제발전과 선군전략을 동시에 추진
 - 미국의 대북정책 번복과 북미 협상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북한은 핵을 통해 자국을 보호하면서 게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할 것

※ 원문 <http://navi.cnki.net/KNavi/JournalDetail?pcode=CJFD&pykm=JSWN>

■ 더 알아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1.8.	북한 신전략무기 예측 〈朝鲜“新战略武器”引猜测〉	두차오핑 (杜朝平)	중국 국방보 (中国国防报)	http://www.81.cn/gfbmap/content/2020-01/08/content_251660.htm
1.10.	2019년 해외 탄도미사일 발전 회고 〈2019年国外弹道导弹 发展回顾〉	리우창 (刘畅)	Aerodynamic Missile Journal (飞航导弹)	http://kns.cnki.net/kcms/detail/11.1770.TJ.20200110.1024.001.html
1.20.	한국은 한반도에서 더욱 큰 역할을 해야 〈韩国应在半岛发挥更大作用〉	잔더빈 (詹德斌)	환구시보 논평 (环球时报 评论)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9CaKrnKoYLJ

4. 일본

■ 북한의 경제개혁 방향 변화의 조짐

- 제재 정면돌파를 내세우며 강해지는 통제

(한반도경제연구회, 일본경제연구센터, 2020.1.14.)

(朝鮮半島研究会, 『北朝鮮の經濟改革の方向に変化の兆し』, 日本經濟研究センター, 2020.1.14.)

- 북한이 2019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전원회의를 통해 핵실험 및 ICBM 발사의 재개와 경제개혁의 궤도 변경을 시사
 -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서 시장을 활용하는 자세를 보였으나, 제재를 '정면돌파' 하기 위해 국가에 의한 통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보임.
 - 군사문제보다도 경제문제에 대한 언급이 더 많음.
-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관리 방법의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경제개혁을 진행하였으나, 전원회의에서 국내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인정
 - 김정은 정권에 들어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정책을 주로 전개
 -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방향성은 '시장화' 및 '개방'이 아닌, 경제제재의 장기화를 대비하여 국가통제를 강화하는 것
 - '국가의 집행력, 통제력이 미약하다'라고 지적하며, 국가의 관리력과 계획부분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 '과도적이고 임시적인 사업방식을 답습할 필요가 없다'라고 밝히며 1990년대 이후 국가경제의 약화로 시장경제가 과도기적으로 도입된 것을 비판
 - 사회주의상업을 복원할 것을 언급하며 계획적 상품공급을 우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임.
 - 경제제재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시장경제의 활력보다도 국가의 지도하에 국내 자원에 의지하는 전통적 경제관리 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함.
 -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으나, 현실성 있게 사업을 실시할 것을 언급하여 생산과 공급의 증가를 촉구
 -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통해 국가의 지도하에 머물면서, 실질적 생산증가와 인민생활 향상에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북한 경제개혁의 실천과제라고 해석 가능
 - '농업전선은 정면돌파전의 주요타격전선'이라고 하며 자립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농업진흥을 주력할 의지를 보임.
- 김정은 위원장은 새해 첫 행보로 순천린비료공장을 방문하여 정면돌파의 강한 의지를 보임.
 - 이번 전원회의에서 밝힌 정책이 사회주의 국가로의 원점복귀가 될지, 시장화 속도를 조정하기 위한 정책일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인지는 향후 지켜봐야 함.

- 당분간은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나, 배급 중심의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완전히 부활할 수는 없음.
- 비핵화 등 안전보장과 더불어 경제개혁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 봐야 함.

※ 원문 http://www.jcer.or.jp/jcer_download_log.php?post_id=58055&file_post_id=58059

■ 2020년 세계와 일본

(다나카 아키히코, 국제문제, no. 688, 2020.1·2월.)

(田中明彦, 『2020年の世界と日本』, 国際問題, no.688, 2020.1·2월.)

- 2020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트럼프 정권의 지속여부가 국제관계의 큰 영향을 미칠 것임.
 - 트럼프 정권은 대외적 군사행동에 대해 소극적이며, 양국 간의 거래를 중요시
 - 대통령의 언동은 불규칙하나, 미국의 정치시스템에 구속을 받음.
 - 미국의 정치시스템에 의해 트럼프 정권의 대외행동이 얼마나 제약을 받을지를 살펴보아야 함.
 - 특히, 중국과의 경제·안보 관계에서 미국의 시스템과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어떻게 상호작용되어 발현되는지를 잘 보아야함.
- 중국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미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저자세로 나오고 있으며, ‘전 과정의 민주’ 등과 같이 민주적 제도를 강조
 - 그러나 영토분쟁에서는 강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음.
- 미국, 중국과의 관계 외에도 2020년 일본 외교에서 아래의 사안들이 중요
 - 미일동맹의 견지를 위해 미국 내 미일동맹 지지세력과의 밀접한 관계를 강화하고, 스스로 방위력 정비를 실시하여야 함.
 - 안전보장과 직결하는 기술에 대한 수출 관리를 엄격하게 수행해야 함.
 - 중국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과 남중국해에서의 자세를 요구하면서, 중일 간의 현안을 해결할 것을 촉구해야 함.
 - ‘동아시아지역포괄적경제연계(RCEP),’ ‘환태평양 파트너십에 관한 포괄적이고 선진적인 협정(CPTPP 혹은 TPP11)’의 교섭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해야 함.
 - ODA 등을 적극적일 수행하며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구축해야 함.
 - SDGs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함.

※ 원문 www2.jiia.or.jp/BOOK/latest.pdf

■ 더 알아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1.2.	사상최악이었던 '한일관계'에서 다음으로 일어날 일 〈史上最悪だった「日韓関係」で 次に起こること〉	다니엘 스나이더 (Daniel Sneider)	동양경제 ONLINE (東洋經濟 ONLINE)	https://toyokeizai.net/articles/-/321969
1.8.	제31회 CIGS 정책시뮬레이션 동아시아분석의 신전개 : 한반도와 대만 〈第31回CIGS政策 シミュレーション 東アジア分析の新展開 : 朝鮮半島と台湾〉	외교·안전보장 그룹 (外交・安全保障 グループ)	캐논글로벌 전략연구소 (キャノン グローバル 戦略研究所)	https://www.canon-igs.org/research_papers/20200109_miyakeU_report31st.pdf
1.15.	일본의 인도태평양외교와 근린외교 〈日本のインド太平洋外交と 近隣外交〉	소에야 요시히데 (添谷芳秀)	국제문제 No. 688 (国際問題 No. 688)	www2.jiia.or.jp/BOOK/latest.pdf
1.29.	한일비밀군사정보보호협정의 상징적 의미 〈日韓秘密軍事情報保護協定の 象徴的意味〉	나카가와 마사히코 (中川雅彦)	IDE JETRO	www.ide.go.jp/Japanese/IDEsquare/Overseas/2020/ISQ202030_002.html

5. 러시아

■ 김정은, 경제, 외교, 군사 전면에 대한 ‘정면돌파전’ 지시(Ким Чен Ын призвал к лобовому штурму на экономическом,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м и военном фронтах)

(콘스탄틴 아스몰로프, 러시아국제관계위원회, 2020.01.13.)

- 2019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전원회의 결정서로 2020년 신년사를 대체함.
 - 김정은 위원장은 현 정세 하에서 당과 국가가 당면한 투쟁 방향과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문제들이 의정으로 상정되었음을 밝힘.
- 김 위원장은 전반적인 정치 상황과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미국의 전략은 대화와 협상을 가장하여 미국의 정치 외교적 이익을 추구하고, 동시에 제재를 지원함으로써 북한의 힘을 점차 약화하기 위함이라고 평가함.
 -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는 우리 국가의 안보와 존엄성, 미래의 안보를 무엇과도 바꾸지 않기로 더욱 확고히 결정했다”고 입장을 분명히 함.
 - 김 위원장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사실상 오바마 정책의 연장선이며, ‘전략적 억지력’은 시간을 끌면서 제재의 영향으로 북한이 스스로 무너져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판단함. 미국과 북한의 판문점 선언은 형식적이었을 뿐, 이후 과정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큼.
- 부분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재의 압박 수위가 북한의 행동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현재에는 효과가 나타날 수 없음.
 -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는 지정학적 상황의 급격한 변화에서만 가능하며, 미국과 한국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임.
 - 따라서 북한 핵 폐기에 대한 협상은 일정 한도 내에서만 이뤄질 수 있으며,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2년간 해결하지 못한 질문은 잠시 보류하는 것이 최선이라기보다는 최적의 해결책임.

※ 원문 <https://russiancouncil.ru/analytics-and-comments/analytics/kim-chen-yn-prizval-k-lobovomu-shturmu-na-ekonomicheskoy-diplomaticheskoy-i-voennoy-frontakh/>

■ **한국 정부, 이란과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따르고 싶지 않아(Сеул не хочет следовать курсу Вашингтона в отношении Ирана и КНДР)**
(올레그 키리야노프, 로시스카야 가제타, 2020.01.15.)

- 한국의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을 포함한 한국 지도부는 한국이 외교 정책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원하며 미국 정부의 방침에 대한 맹목적 이행을 원치 않는다고 밝힘.
 - 최근 미국과 북한,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하면서 미국이 북한과 이란 문제에 관해 동맹국에게 “공동의 노력을 조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으나, 미국과는 독자적으로 북한, 이란 각국과 협력 및 관계 완화를 이어 온 한국은 난처한 입장에 처했음.
 - 한국은 미국의 우방국 지위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호의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나, 미국이 한국 정부에 호르무즈 연합체 동참 파병을 요구함에 따라 미국과 이란 사이 직접적인 분쟁에 합류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 한국 정치인 및 전문가 사이에서 논의되었음.
 -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북미 간 협상을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되고 독자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남북 화해를 촉진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음.
- 1월 16일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마이클 폼페이오와 마크 에스퍼의 공동 기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은 북한과 이란 문제에 관해 한국 정부가 미국과 입장을 조율하고 연합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음.
 -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포함해 한국이 미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 정부의 외교 노선이 어떻게 나아갈지는 의문임.
 -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후반기에 접어들었으며, 한국이 4월에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집권 여당이 북한 및 이란과의 관계에서 정부의 역할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고 보임.

※ 원문 <https://rg.ru/2020/01/15/seul-ne-hochet-sledovat-kursu-vashingtona-v-otnoshenii-irana-i-kndr.html>

■ 더 알아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1.14.	북한: 신년사, 결정서가 대체 (KHDP: смена курса вместо новогодней речи?)	콘스탄틴 아스몰로프 (Константин Асмолов)	Valdai Discussion Club	https://ru.valdaiclub.com/a/highlights/kndr-smena-kursa-novogo-dniya-rech/
01.22	북한의 새로운 얼굴: 왜 김정은은 군 인사를 개편하는가(Новые лица: почему Ким Чен Ын меняет свою команду)	다닐 미진 (Даниил Мизин)	Gazeta.Ru	https://www.gazeta.ru/politics/2020/01/22_a_12922328.shtml

Ⅲ

북한 관련 동향

1. 북한 주요 일지(1.1.~31.)

일자	대내	대남·대외
1.01. (수)		• 김정은 위원장, 1일 새해를 맞아 허종만(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중앙상임위 의장)에게 축전 • 이란 대통령(하산 로하니), 1월 1일 2020년 새해 즈음 김정은 위원장에게 축전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중앙상임위·재중조선인총연합회, 1일 새해를 맞아 김정은 위원장에게 축전 • 총련조직과 단체들, 김정은 위원장에게 새해에 즈음하여 축전 • 「반제민전」 중앙위, 1일 새해를 맞아 김정은 위원장에게 축전
1.02. (목)	• [김정은 공개활동]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 최룡해(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김재룡(내각 총리) 등 동행 • [김정은 공개활동] 2020년 새해를 맞는 전국 원아들과 소학교 학생들·유치원·탁아소 등 어린이들에게 식료품 전달	
1.03. (금)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제194호(1.3.), '양강도 삼지연시 거리 이름을 정함에 대하여' 발표	
1.04. (토)		• 김정은 위원장, '미얀마 독립 72주년'에 즈음하여 1월 4일 미얀마 대통령(윈 민)에게 축전 발송
1.05. (일)	• 「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제시 과업 관철」 평양시 쉼기대회(김일성광장) - 김재룡(내각 총리)·김덕훈(당 부위원장)·김일철(내각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등 당·정 간부들과 평양의 일꾼·근로자·청년학생 참가 • 강원도농업과학연구소·원산남새연구소 개건 준공식 진행	
1.06. (월)	• 강원도 수산사업소 준공식 진행	
1.07. (화)	• [김정은 공개활동] 순천린비료공장 건설현장 - 조용원·마원춘·리정남(당 중앙위 간부들) 동행 및 현지에서 김재룡(내각 총리), 장길룡(화학공업상)이 맞이 • 김재룡(내각 총리) 현지 요해 -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일자	대내	대남·대외
	「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제시 과업 관철」 강원도·평안북도·함경남도·양강도 결기대회(토론·군중시위) 진행(~1/8) - 지방당·정권기관·근로단체·공장 등 일꾼·근로자·청년학생들 참가	
1.08. (수)	마식령스키장, 스키관광 시작	[대남]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와 안전 및 북-미 협상 재개 등 외교활동에 대해 비난 “남조선 당국은 외세와의 공조에 계속 매달리고 다른 나라들에 구걸 청탁하는 체질화된 악습을 버리지 않는다면 온 민족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더욱더 배척과 멸시, 무시와 수모를 받게 된다”
1.09. (목)	당 전원회의 제시 과업 관철을 위한 평안남도·황해남도·황해북도·자강도 결기대회 및 군중시위 진행	
1.10. (금)	- 양덕온천문화휴양지 개점 - 평양고려국제여행사에서 예약접수	‘한성조약’ 체결(1885.1.9.) 135주년을 맞아 일본 비난 및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 요구 - 카타르 추장(따밈 빈 하마드 알 타니), 1월 2일 ‘자국 독립절에 즈음한 김정은 위원장의 축전’에 대한 답전 발송
1.11. (토)		[대남] 한국 국방부 장관의 새해 ‘지휘서신 8호’와 공군참모총장의 16전투비행단 방문 발언(‘연합방위태세·대비태세 유지’ 당부) 비난 “새해에도 외세에 추종하여 군사적 대결의 길로 계속 줄달음치려는 것”이라고 비난 -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 담화 발표 - 북미 간 대화 성립은 “미국이 우리가 제시한 요구 사항들을 전적으로 수긍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
1.12. (일)	- 새해 첫 ‘체육의 날’을 맞아 위원회·성·중앙기관 일꾼들의 집단달리기 진행(김일성광장) - 각지에서 대중 체육활동들 진행	[대남] 한국 국방부 장관 신년사 대북발언(군 기강과 정신적 대비태세 확고히 등)과 공군 참모총장의 신년 지휘비행 비난 “동족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흉심의 발로”라고 비난 - 김정은 위원장, 오만 술탄국 술탄(하이삼 빈 타리크 알 사이드 국왕)에게 조전
1.14. (화)	원산김치공장 새로 건설 준공식 진행	- 한국 외교차관보의 방미 외교활동(1.3. 미 국무부 차관보 면담, 한반도 문제와 한미 간 현안 논의) 비난 “새해에도 외세추종, 외세와의 공조에 계속 매달리겠다는 것 시사, 대미추종행위” - 김정은 위원장, 1월 14일 오만의 새 술탄 ‘하이삼 빈 타리크 알 사이드’에게 즉위 축전 발송

일자	대내	대남·대외
1.15. (수)	- 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과업 관철을 위한 쉼기 모임들, 인민경제 주요공업부문 단위들에서 진행 - 비물질문화유산들과 역사유적유물·천연기념물들 새로 등록	김정은 위원장의 강령적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총련 일꾼들의 모임' 진행(도쿄 조선회관)
1.16. (목)		- 중국 예술인들의 2020년 北中 친선 설 명절 종합 공연 진행(봉화예술극장) - 대외문화연락위원회·조중친선협회·중국 문화 및 관광부·北 주재 중국대사관 공동명의
1.17. (금)	[김정은 공개활동] 황순희(항일혁명투사·조선혁명 박물관 관장) 빈소 조문	
1.19. (일)	당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 관철을 위한 쉼기모임, 농업·과학·교육·보건·국토관리·문학예술·체육 부문 단위에서 진행	
1.20. (월)	[김정은 현지지도] 흥남대경수산종합기업소 10돌 기념보고회 현지 진행 - 양명규(함경남도 당 부위원장)·안창남(同 기업소 당 위원장 기념보고) 등 참가 - 최룡해(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현지 요해 - 황해 제철연합기업소, 사리원 닭공장 4.15기술혁신돌격대운동 개시 40돌 기념보고회 진행(중앙노동자회관) - 박태성(당 부위원장)·전광호(내각 부총리)·리충길(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기념보고)·4.15기술 혁신돌격대원들 등 참가	
1.21. (화)	- 김재룡(내각 총리) 현지 요해 - 순천리비료공장 건설현장, 영유광산, 보산제철소 - 산림복구 및 국토환경보호부문 일꾼회의 진행(인민 문화궁전) - 김재룡(내각 총리), 김덕훈(당 부위원장), 김정관(인민무력상(신임, 육군대장)) 참석	
1.22. (수)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쉼기대회(천리마구역 김일성 동상 앞 교양마당) 및 여맹일꾼들과 여맹원들의 쉼기대회(개선문광장) 진행	'고종황제 독살 사건' 관련 일본 비난 - 조선민족정신말살을 노린 일본의 고전압수소각 만행 비난
1.23. (목)	「청년동맹·농근맹·직총 중앙위」 전원회의 확대 회의 개최 - 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김정은 위원장 백두산 지구 혁명전적지 시찰시 제시 과업 관철 토의 및 결정서 채택	北 외무성, 2020년 설명절 즈음 주북 외교단 초청 연회 개최
1.24. (금)		- 북한 남승우(총련 중앙상임위 부의장) 담화 발표 21일 당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혁명적 노선 지지

일자	대내	대남·대외
1.25. (토)	• [김정은 공개활동] '설 명절 기념공연' 관람 - 최룡해·김경희·리일환·조용원·김여정·현송월 함께 관람	•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확산 실태' 보도
1.26. (일)		• 김정은 위원장, 인도 대통령(람 나트 코빈드)에게 '공화국의 날' 축전 발송 • 남한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환자 1명 발생' 및 4명 격리 보도
1.27. (월)	• 평양시 사상일꾼회의 진행(인민문화궁전) - 김능오(평양시당 위원장) 김봉석(평양시당 부위원장, 보고) 등 참가	• [대남] 국방부 장관 신년사와 합참의장 및 공군참모총장 대북발언 비난
1.28. (화)	• 신의주화장품공장, '우리식의 향수 생산 공장' 새로 확립	
1.29. (수)		• 주북 쿠바 대사,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쿠바 혁명 승리 61돌' 연회 개최 - 김형준(당 부위원장)·박명국(외무성 부상)·박순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등 초대·참석
1.30. (목)	• 「사민당」 중앙위 전원회의 진행(평양) • 천도교청우당 중앙위 전원회의 진행(평양)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위험성이 없어질 때까지 "위생방역체계를 국가비상방역체계로 전환", 당·국가 긴급조치 발표 및 중앙과 도·시·군들에 "비상방역지휘부 조직" 등 예방대책 수립	
1.31. (금)		• 김정은 위원장(1.31) ↔ 베트남 주석 '응우옌 푸 쩡' (1.21), 외교관계 설정('50.1.31) 70주년 즈음 축전 교환

2. 북한언론 주요 사실 및 논평

〈대내〉

■ 당창건 75돐을 맞는 올해에 정면돌파전으로 혁명적대진군의 보폭을 크게 내짚자(노동신문, 2020.01.03.)

- 1월 3일자 노동신문은 현 정세에서 정면돌파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설을 게재함.
 - 현 정세는 “적들과의 장기적 대립을 예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대세력들의 제재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고 주장
 - 이미 이룩해둔 성과가 크지만 자력강화의 견지에서 국가관리 및 경제사업, 그리고 기타의 분야에서 바로잡아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
 -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의 기본 정신은 정세가 좋아질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면돌파전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며,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우리가 편하게 살도록 가만두리라는 꿈”은 꾸지도 말아야 하고 사회주의 건설에 가로놓인 난관을 오직 자력갱생의 힘으로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
 - 정면돌파전의 기본전선은 경제전선으로, 경제 분야의 당면 과업은 나라의 경제 토대를 재정비하고 가능한 생산잠재력을 총발휘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라고 독려
 - 이외에도 사회주의문화건설, 과학기술, 보건발전, 대중체육활동, 군중문화예술 활동, 증산절약, 질제고운동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강력한 정치외교적·군사적 공세 또한 정면돌파전 승리의 중요한 담보가 된다고 주장

■ 정면돌파전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시대적과제(노동신문, 2020.01.05.)

- 1월 5일자 노동신문은 모든 일군, 당원, 근로자들이 정면돌파전의 필요성과 의의를 분명히 인식할 것을 촉구하는 논설을 게재함.
 - 당이 제시한 정면돌파사상과 전략을 철저히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모든 일군, 당원, 근로자들이 정면돌파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정면돌파전은 혁명의 당면 임무인 동시에 전망적인 요구로서도 반드시 수행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
 - 오늘날 혁명의 전진발전을 가로막는 주된 장애물은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압살 책동”이며, 미국은 대화를 말하면서도 “공화국을 완전히 질식시키고 압살하기 위한 도발적인 정치군사적, 경제적흥계”를 더욱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

- 현 시점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이 철회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군사기술을 제고하고 국가안전을 위한 전략무기 개발을 지속하여 국가의 안전과 존엄, 강국건설을 군사적으로 담보해야 할 중대한 시기라고 주장
- 모든 일군, 당원, 근로자들이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적들의 제재봉쇄책동을 총파탄시키기 위한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독려

■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기본전선은 경제전선(노동신문, 2020.01.08.)

- 1월 8일자 노동신문은 정면돌파전에서의 경제전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사를 게재함.
 -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오늘의 정면돌파전의 기본전선은 경제전선이라 천명하였는데, 여기에는 경제전선에서부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려는 당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설명
 - 경제전선은 적대세력들과의 가장 치열한 대결장으로, 현 시기 경제건설 분야는 북한과 미국,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와의 승패가 결정되는 곳이라고 주장
 - 북한이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를 확고히 하자 “제국주의반동”들은 더 이상 북한을 힘으로 압살할 수 없다고 판단, 제재봉쇄를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삼고 이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
 - 장기적인 제재에 경제가 질식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에 기민하고 원만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부문의 폐단을 바로잡고 인민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보강해야 하며, 중요한 경제과업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집행력, 통제력 또한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

■ 과학기술은 정면돌파전의 열쇠(노동신문, 2020.01.11.)

- 1월 11일자 노동신문은 정면돌파전에 있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사를 게재함.
 - 과학기술은 경제전선에서 “적대세력들의 제재봉쇄 책동”을 무력화시키고 국가 경제를 계획적·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추동력이 되며, 국가의 자강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승리를 이룩할 수 있게 하는 “만능의 열쇠”라고 주장
 - 초강도 제재를 유지하여 북한의 힘을 점차 약화시키려고 하는 미국의 본심에 대항하여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 데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데,

- 이때 과학기술의 힘에 철저히 의지하는 것은 경제활성화와 인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에너지, 원료, 자재 문제를 “우리 식대로,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성공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방책이 된다고 주장
- 또한 과학기술은 무적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계속 강화해나갈 수 있게 하는 담보로서, 국방력 강화 사업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떼어놓을 수 없다고 주장
 - 이외에 과학기술은 사상문화전선에서도 중요한 무기가 되는데, 적대세력들이 첨단정보기술수단을 이용하여 “반공화국심리모략전”과 “불순출판선전물 유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북한도 사상문화 분야에서 과학기술성과들을 적극 도입하여 전파공간과 인터넷망을 “우리 공화국의 위상과 사회주의제도의 참모습을 소개 선전하는 마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

■ 정면돌파전의 승산은 확고하다(노동신문, 2020.1.25.)

- 1월 25일자 노동신문은 정면돌파전의 승산은 확고하며, 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펼쳐야 한다는 논설을 게재함.
 -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혁명적 노선에는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기치높이 우리의 힘을 끊임없이 증대시켜 적대세력들의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건설의 활로를 반드시 열어놓으려는 조선로동당의 철의 신념이 맥박치고 있다”고 지적함.
 - 정면돌파전은 공격만을 아는 인민의 전통적 투쟁방식이며 승산은 확고하다고 강조하며, “당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 자력갱생의 승전포성을 울려 주체조선의 기상을 힘 있게 펼쳐야 한다”고 역설
 -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당과 혼연일체를 이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이 있으며 국가의 막강한 저력과 잠재력이 있기에 정면돌파전의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설명하며, 현재의 난국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해 나가야 함을 주장

■ 정면돌파전의 기본방향(노동신문, 2020.1.30.)

- 1월 29일 노동신문은 정면돌파전의 기본방향에 대한 논설을 게재함.
 - 전체 인민이 당의 구상과 의도대로 혁명적 진군 및 새로운 사회주의 건설을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정면돌파전의 기본방향을 잘 알아야 함을 강조
 - 정면돌파전은 대외적으로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 고립압살책동’에 대항하기 위한 공세전과 대내적으로 국가의 ‘발전 잠재력을 총발동’하며 그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없애기 위한 투쟁이라는 두 개의 방향에서 진행됨.

- 내부적 힘, 자력강화는 정면돌파전의 기본방향이며, 주체적 역량이 강해야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고 사회주의승리를 향하여 줄기차게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
- 시대적 변천과 현실적 조건에 부응하는 각 분야의 갱신과 혁명과정만이 자강의 거창한 위업을 견인하고 추동해 나갈 수 있으며, 사업에서 나타나는 부족한 점들을 대담하게 인정하고 제때에 극복해나가는 데에 내부적 힘, 자강력을 부단히 강화하는 지름길이 있다고 덧붙임.

■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철저히 막기 위한 비상대책 강구(노동신문, 2020.1.30.)

- 1월 29일 노동신문은 신형코로나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비상대책으로서 위생방역 체계를 국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하였다는 기사를 보도함.
- 당과 국가의 긴급조치에 따라 비상설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의 위험성이 없어질 때까지 '위생방역체계를 국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함을 선포함.
- 중앙과 도, 시, 군들에 비상방역지휘부가 조직되었으며, 각 지휘부들에서는 국경, 항만, 비행장 등 국경통과지점들에서 검사검역사업을 보다 철저히 실행하며 외국 출장자들과 주민들에 대한 의학적 감시와 검병검진을 빠짐없이 진행하여 환자의 진자들을 조기에 적발하고 격리 치료하는 문제, 검사 및 진단시약, 치료약들을 확보하는 문제, 위생선전을 강화하는 문제 등에 대한 조직사업을 치밀하고 강도 높게 전개해나가고 있음.

〈대외〉

■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고문 담화(조선중앙통신, 2020.01.11.)

- 1월 11일자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북미대화 복귀 가능성에 대한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담화를 보도함.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생일축하 메시지를 직접 친서로 전달받았으며, 한국이 이를 ‘전달’한다고 한 것은 북미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보려는 미련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
 -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친분관계가 나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 북미대화에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거나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보려는 것은 “멍청한 생각”이라고 비판
 -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서 1년 반이 넘도록 속고 시간을 잃었으며, 인민의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일부 유엔제재와 나라의 중핵적인 핵시설을 통채로 바꾸자고 제안했던 베트남에서와 같은 협상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
 -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긍하는 조건에서만 대화가 가능하지만 미국이 그럴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

■ 기만적인 평화와 안전타령을 걷어치우라(조선중앙통신, 2020.01.14.)

- 1월 14일자 조선중앙통신은 일본 정부의 자위대 해외 파견에 대한 비판 논평을 보도함.
 - 최근 일본 정부가 해상자위대의 해외파견에 변함이 없다고 하며 《P-3C》초계기와 호위함 1척을 파견한다는 것을 공포한 것은 군국주의 광신자들의 갈수록 노골화 되는 “해외팽창야망실현책동”의 발로라고 주장
 -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력파견을 “긴장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으로 표방하고 있지만, 외신들은 자위대 파견 조치가 중동 분쟁을 더욱 격화시킬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지적
 - 아베정권이 들어선 후 일본의 방위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산 무기 구입에 사상 최고 수준의 예산을 투자하였는데, 자위대의 실전화·현대화를 완성해 “재침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일본반동들의 흉심”은 절대로 감출 수 없다고 경고

■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군사적 움직임(조선중앙통신, 2020.01.22.)

- 1월 22일자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이 국제사회의 경계심을 자아내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함.
 -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것에 대해 세계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미국이 “잠재적 적수를 제압하고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해 보려 하고 있다”고 주장
 - 최근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특수부대를 창설하려 한다는 블룸버그통신의 보도를 인용하며, “이 부대가 필리핀과 중국으로부터 동쪽에 위치한 태평양상의 섬들에 주둔하게 될 것이며 극초음속미사일을 비롯한 지상 및 해상 목표를 정확히 소멸할 수 있는 고정밀무기들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전함.
 - 또한, 미국이 정보, 전자, 사이버, 미사일작전을 벌릴 수 있는 2개의 대중 전문 부대를 태평양지역에 전개할 계획이며,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 전략폭격기의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공개

※ 일러두기 ※

- * 연구동향(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북한)의 경우 해당자료의 홈페이지 업로드(또는 입수)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
- * 각국의 상황 및 자료 입수시기에 따라 분량상의 차이 발생 가능